

이기종 DB의 다양한 관리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DBArtisan 8.7

데브기어

Tel : 02-595-4288
www.devgear.co.kr

- 종류 : 데이터베이스 관리, Space Check, Performance Monitoring
- 특징 :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관리
- 평가 : ★★★★★
- 가격 : 별도 문의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DBA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만날 때면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별도의 DB 관리 툴을 사용하는 문제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DB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구입한 관리 툴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쏟아 부은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DB Management, Monitoring (Performance Check), Data Capacity 등 영역으로 나눠 보면 DBA가 다뤄야 할 툴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업무 비중도 증가하게 되고 결국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구입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툴들은 일부 제약된 기능만 사용되거나 전사용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엠바카테로 테크놀러지의 DBArtisan 8.7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한 DB Management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Space Analysis, Performance Analysis 등의 고급 기능들까지 포함된 부분도 다른 툴들에 비해 강점이다. 엠바카테로 테크놀러지의 제품들은 동사의 다른 최신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툴 클라우드(Tool Cloud) 및 인스턴트-온(Instant On)을 이용해 인스톨 과정 없이 클릭 한번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도 기업 내에서 자유롭게 플로팅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기종 DB 관리를 하나의 툴에서

DBArtisan의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을 단일 UI의 툴에서 관리함으로써 툴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이 편리한 UI와 간단한 조작만으로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성, 오브젝트 관리, Data Export/Import 작업,

예약작업 등록 및 관리, 유저 관리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DBArtisan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간단히 몇 가지 설정만으로도 Source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및 데이터를 Target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

또한 DBArtisan에서는 경쟁 제품들에 비해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Oracle, MS SQL Server, DB2 UDB, MySQL, Sybase ASE 등을 지원하며, 지원 버전도 Oracle의 경우 11g까지, MS SQL Server의 경우 2008 버전까지 지원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버전을 가장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종 DB 모니터링의 강점

다른 데이터베이스 툴들과 달리 DBArtisan에서는 데이터 Source에 등록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 후 이기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크게 Process, Lock, I/O Summary, Wait, TOP SQL Cache로 구성되어 있으며, 탭 이동을 통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트랜잭션 상황 및 자원의 사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Toggle 가능한 ISQL, PLAN 기능을 통해 실행 중인 SQL 문과 플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Query Opti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플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복잡한 플랜 정보를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다.

Space Analyst, Capacity Analyst를 이용한 용량 분석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에도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Size를 Display해 주는 기능이 있지만, 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는 툴은 대

부분 별개의 툴로 제공되고 있다.

DBArtisan은 Space Analyst 기능을 통해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Size를 Display해 줄 뿐만 아니라 Capacity Analyst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향후 사용량을 예측하고 하드웨어 증설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 객관적인 하드웨어 증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준다. Capacity Analyst는 단순한 데이터 Size 변경 입력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의 Fragmentation 정보, 오브젝트(테이블, 인덱스) 변동 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용량 산정 외에 기타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있다.


Performance Analyst를 이용한 성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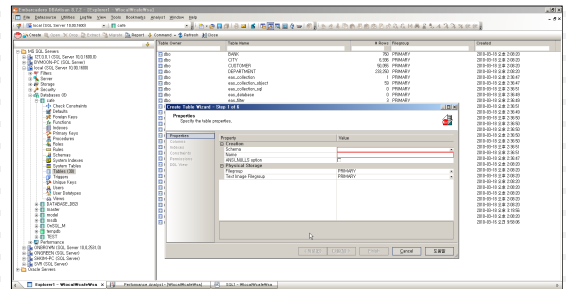
Performance Analyst는 얼핏 보면 모니터링 기능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니터링 기능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Performance Analyst는 과거 수집된 정보를 통해 특정 문제 시점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가 종료된 이후에도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emory, I/O, DB, User, OS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Graph로 보여 주며, 각 부분에 자원 사용량이 많았던 트랜잭션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SQL이나 그 외 어떠한 부분의 자원 사용이 과다한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TOP SQL에서는 CPU, Memory, I/O, Wait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자원을 많이 사용한 SQL 구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기능과 마찬가지로 플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Performance Analyst를 접하면서 아쉬운 점이라면 시점간 성능 비교를 통한 성능 향상 전과 후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성능 분석 후 개선도 중요하지만 성능 개선 작업 후 시점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한 분석 기능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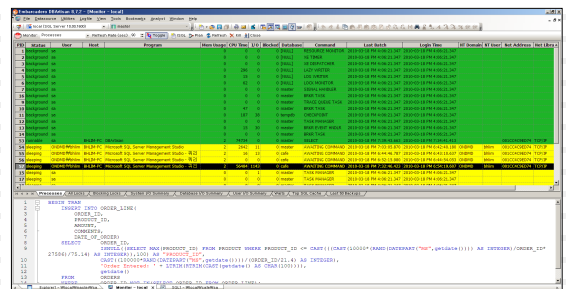
보고서 작성을 위한 Report 기능

Change Manager는 DBA뿐만 아니라 어느 DBA도 마찬가지로 긴 하지만, DBA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이 아닐까 싶다.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DBArtisan에서도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Schema Publica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Report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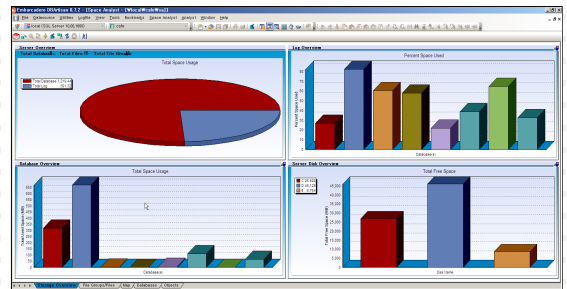
관리 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DBA들은 이제 지겹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동일한 UI에서 관리 가능한 점은 분명 DBArtisan만의 유일한 특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BArtisan은 동일한 UI에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한다.  임병혁 bhlim@ondm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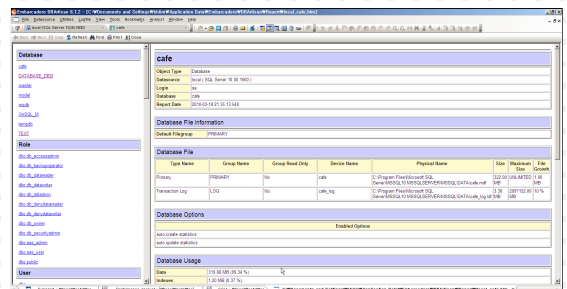
<화면 1> 위저드를 이용한 오브젝트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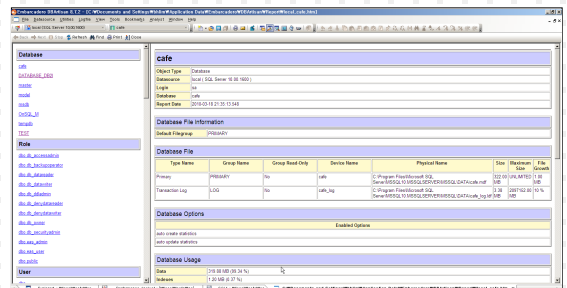
<화면 2> 모니터 기능을 이용한 상세 조회



<화면 3> Space Analyst로 용량 분석



<화면 4> Performance Analyst로 성능 분석



<화면 5> 자동 생성된 리포트